

농촌은 외면한 '전북 대기오염 측정망'

14개 중 13개가 전주·군산·익산·정읍·남원에 설치 김제·부안 산업단지 등 통행량 급증지역 주민 '불만'

전북지역 대기오염 측정 시스템의 시·군간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지역 대기오염 측정망이 도시지역에 집중적으로 설치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농촌지역으로 확대가 시급하다는 것이다.

도내 총 14개의 대기오염 측정망 중 13개가 전주(5개), 군산(3개), 익산(3개), 정읍(1개), 남원시(1개) 등 5개 시·군에 설치됐다. 농촌지역은 고창군이 유일하다. 나머지 8개 시·군에는 측정망이 아예 없다. 특히 김제시와 부안군, 임실군, 완주군

등지에는 최근 기업이 속속 들어서고 자동차 통행량이 급증하면서 대기오염이 심각해지고 있지만 예산부족 등의 이유로 설치 지연돼 주민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최근 산업단지 분양으로 자동차가 늘면서 대기오염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지구온난화 등으로 오존 주의보가 자주 발령되고 중국으로부터 황사가 빈번히 유입되는 등 대기환경이 악화하는 만큼 인구 밀집지역에 대기오염 측정망을

구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대기오염 측정망이 설치되면 기온과 습도, 풍속 등 기상부서는 물론 미세먼지와 아황산가스, 일산화탄소, 이산화질소, 오존 등 대기오염물질을 실시간으로 24시간 관찰하게 된다. 전북도 보건환경연구원은 "도민의 건강 보호를 위해 예산을 확보해 수요 입지를 분석한 뒤 시급한 곳부터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전주·부안=강철수기자 knews@



남원역에서 '춘향과 이몽룡' 만나요

남원을 대표하는 춘향과 이몽룡 상조물이 최근 남원시 남원역 광장에 세워졌다. 남원시는 올 초부터 설문조사와 공모를 거쳐 상조물을 제작했다. /남원=백성기자 bs8787@

정읍 농소 지하차도 덮개 설치된다

윗부분 개방돼 결빙사고 우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이하 권익위)가 호남고속철도 정읍시 구간 농소 지하차도에 겨울철 결빙 방지를 위한 협의를 이끌어 냈다.

권익위는 최근 정읍시청에서 현장 조정 회의를 열고 농소 지하차도에 겨울철 결빙 방지 대책으로 덮개를 설치해 달라는 집단 민원을 중재해 해결방안을 마련했다. 정읍시 농소동에 있는 농소 지하차도는 기존 호남선과 신설 고속철도를 연결하는 66m 길이의 지하차도다. 정읍시를 지나 7개 호남고속철 지하차도 중에서 유일하게 윗부분이 개방돼 있다. 이 때문에 겨울철 눈이 많은 지역 특성상 결빙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우려가 컸다.

하지만 한국철도시설공단은 호남고속철 공사가 오는 12월 준공 예정으로 마무리 단계에 와 있고, 지하차도는 자동 염수 분사방식으로 시공할 계획이어서 추가 공사가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이에 정읍시 민 1500여 명이 지난 7월 권익위에 집단민원을 제기했었다.



권익위는 민원접수 후 수차례의 실무협의와 현장조사를 거쳐 최근 정읍시청에서 시민들과 이현정 한국철도시설공단 호남본부장, 김생기 정읍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박재영 부위원장 주재로 현장 조정회의를 개최해 최종적인 협의를 이끌어 냈다. 조정결과 ▲한국철도시설 공단은 정읍 구간 7개 지하차도에 설치할 백면타일 등 시설 일부를 정읍시와 협의해 변경시공하고, 이로 인한 절감 사업비를 농소 지하차도 덮개(66m) 설치비용에 충당하고 ▲정읍시장은 덮개 설치비 중 4억 원을 공동 부담하며 ▲시민들은 더 이상 이익을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정읍=박기섭기자 parkss@

군산 백토고개 지하차도 완전 개통

4차선 460m "교통난 해소 기대"

군산시 백토 고개 사거리 지하차도가 최근 완전 개통됐다. 군산시는 경사도가 급해 겨울철 교통사고가 빈발하고, 예술의 전당 개관후 가중되는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11년부터 4차선 지하차도(길이 460m) 개선 공사에 나섰다. 시는 가로수 식재와 일부 부대공사가 남

아있으나 지하차도 구조물과 도로포장공사가 완료됨에 따라 추석명절에 맞춰 시민 편의를 위해 전면개통하게 됐다. 군산시 관계자는 "도심내 주간선도로의 중심 사거리인 백토 고개 지하차도 개통으로 교통문제가 해소되고, 예술의 전당과 함께 도시경관을 개선시켜 군산시의 새로운 명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본 공사는 다음달 말 준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군산=박기섭기자·전북취재본부장

전남 소식



추석 연휴 전남 휴양림은 '성수기'

11곳 예약률 평균 91%

가족 단위 캠핑객들 많아

추석 연휴 기간 전남지역 11곳의 휴양림이 가족 단위 여행객들로 크게 붐볐다. 대체 휴가일인 10일을 제외한 175개의 시설 예약률도 90%를 넘어섰다.

11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내 휴양림에서 지자체와 민간에서 운영하는 자연휴양림 11곳의 175개 숙박시설 예약률이 91%(대체휴가일 제외)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광양시 백운산 자연휴양림(117%), 순천시 자연휴양림·여수시 봉황산 자연휴양림(100%) 등은 아예 조기 마감됐다.

전남도는 이 기간 전남지역 자연휴양림을 찾은 여행객이 5200여명에 이를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달린 추석 풍속도를 반영하듯 추석 연휴에 가족 단위로 여행하는 인구가 늘면서 휴양림 숙박시설 이용객이 증가한 것이다.

도는 명절 연휴를 이용해 여행을 계획한 외지인들이 시설이 깨끗하고 자연환경이 우수한 전남도내 자연휴양림을 선호하면서 이 같은 높은 예약률을 기록한 것으로 보인다.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캠핑문화가 급속히 확산되면서 자연휴양림에서 가족 단위 캠핑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전남도내 8곳의 휴양림에는 오토캠핑장 20면, 데크 캠핑장 134면, 일반 캠핑장 65면 등 220면의 캠핑장이 있다.

과거에는 주로 여름 피서철에 바닷가 해수욕장에 텐트를 치고 캠핑을 즐겼으나 요즘은 계절에 상관 없이 산림 안에서 캠핑을 즐기는 변화를 보이고 있다. 전남도는 단풍이 드는 가을이면 더욱 많은 캠핑객들이 휴양림을 찾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윤병선 전남도 산림산업과장은 "전남의 휴양림은 따뜻한 기후 특성과 늘 푸른 상록수, 낙엽성 나무가 함께 자라기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 봄에 이르른 파란 치드가 많다"며 "건강과 산림 치유를 위한 최적의 조건을 갖춘 전남의 휴양림을 찾아 힐링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유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완도경찰 '동네조폭 100일 특별 단속'

불법영업 두려워 신고 못한 업주들 불입건 등 참작

완도경찰서(서장 이수경)는 지역주민과 시장상인 등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하거나 금품을 갈취하는 '동네조폭'이 주민생활 주변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한다고 보고 '동네 조폭 100일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집중단속은 경찰청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특별단속이다. 완도경찰은 "지금까지는 동네 술집이나 유흥주점 업주들이 동네 폭력배들로 부터 피해를 당해도 도우미 채용 등 불법 영업 사실이 들릴까 두려워 신고를

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동네조폭'을 신고하는 업주에 대해 불법 영업을 초범일 경우는 불입건하고 재범이라도 반성을 전제로 기소유예 처분하기로 검찰과 협의를 마친 상태"라고 밝혔다. 이수경 서장은 "이번 특별 단속을 통해 동네조폭의 범주 분위기를 제압하는 한편 특별단속 기간이 끝난 후에도 집중적인 단속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이라며 완도 주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협조를 당부했다. /완도=정은조기자·서부취재본부장

금당공인중개사

저희는 매매·교환등의 물건을 구입합니다!

감정가이하

- 화정동 티마빌인근 대지 661㎡(200) 7층 건물 245㎡(741) 은행 15억 전세 4억 이상 월 1500선 수억매도 23억
- 화정역 인근 6차선 도로 준주거 1105㎡(334) 건물 423㎡(128) 사옥, 병원, 오피스텔, 학원, 식당 등 복합 15억7천
- 유동 병원, 사옥 적합 대지 769㎡(240) 건물 1㎡(1818평) 15억
- 북구 병원, 요양시설 적합 대지1057㎡(320) 건평 1962평 34억
- 금남로 가구점 대지 416㎡(126) 공시지가 12억7천 시설임비 대출 10억선 매도 11억2천
- 계림동 준주거 대지 799㎡(242) 5층 건물 1610㎡(487) 감정 14억 5천 은행8억3천 매도 10억3천
- 유동로터리 인접 대지 235㎡(101) 건물 185평 공시지가 3억9천 매도 4억천
- 요양병원 땅 21000㎡(6370) 병원 2693㎡(816) 150병상, 신축할 병원은 400병상 허가있음 감정 42억선 대출 26억 자산 감정 53억선 매도 42억 직접 상담 원함
- 금남로 4가 대로 대지 317㎡(97) 건평 1235㎡(363) 15억 공시지가

투자 / 매도 / 교환

- 쌍촌동 5.18공원건너편 대지 198㎡(60) 건물 453㎡(137) 1층은 가게와 안집 원룸 15개 5억 2천
- 쌍촌동 신축건물 대지 215㎡(65)건평 418㎡(126) 안집과 원룸 5개 투룸 4개 대출1억5천 매도 6억4천
- 모텔, 담양 대지 978㎡(296) 객실 247개 은행 3억7천 매도 5억천
- 충장로5가 4거리 코너 대지 272㎡(87) 건평 493㎡(149) 8억2천
- 쌍촌역 고시원 대지 272㎡(87) 건평 493㎡(149) 보증금 3천만원에 월 490만원 선 수익 노후생활에 적합 5억2천만원
- 무안군 현경면 빌라 85㎡와 80㎡은행 7천만원씩 대출 임야, 전, 담과 교환원함 문의바람

임대

- 쌍촌동 기도생활주택 1.2차 임대, 매매, 임대는 보증금 500 월 40선이 나임대조건은 조정 호털급 시설, 사생활 보호에 완벽

문의 222-4994, 010-2632-5659
쌍촌동 (구) 등기소 자리, 가도 생활주택 전시관

축양장 부지 적합

완도군 고금면 바닷가 축양장 부지 최적
신축 주택 및 도로·전기 시설 완비

- 지역 : 생산관리지역
- 지목 : 전 및 대지
- 면적 : 11,795㎡
- 매가 : 3.3㎡ 당 23만

소액 투자

완도군 고금면 농상리 고금-신지 국도 주변
바닷가, 경사 완만, 전망 좋음.

- 지역 : 관리·농림 혼합
- 지목 : 전 및 임야
- 면적 : 8,569㎡
- 매가 : 3.3㎡당 3만

최고의 전원주택지

서구 세하동 최고 요지
정남향 앞도로 접, 조망권 최고 !!

- 지역 : 1종 주거지역
- 지목 : 전
- 면적 : 1917㎡
- 매가 : 3.3㎡당 120만

행운(구.대창)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송창석
011-642-7777

收益 33.3% 호텔

“금매매”

대지 6,600㎡, 건평 2,192㎡
객실 48개, 지하수, 심아전기
2013년 리모델링 완료
최고급 럭셔리 호텔급 시설!
지역 독점상권, 접근성 최고!

- 월매출 8천만원 / 지출 3천만원
- 매출 장부확인 및 계약부조건 가능
- 3년 운영 시, 투자 원금 회수 가능
- 매가 33억 (융자 15억), 현금 18억
- 가격 절충 불가, 실수요자만 문의 바람

신세계공인중개사사무소
문의전화 010.5188.5515

금매매

신안동 신안 사거리
부근 30m
도로변 코너

6층 상업지역 건물

건물 600평
토지 151평

평당 토지 가격
500만원정도

토지 가격 만도
7억5천만원정도

매매가격
8억8천만원

라멘조 총별
100평 정도

조건은 전세,
월세 안고 구입

010-3215-9969